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의 소비자 착용실태 및 선호 조사연구 - 30대 여성 체형별 비교 중심으로 -

정재철 · 박선경^{1)†}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¹⁾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Research Study on the Wearing Conditions and Preferences of Slim Fit Tailored Jacket Consumers - Focused on the comparison by body shape among the women in their 30s -

JaeChul Jeong and SunKyung Park^{1)†}

Graduate School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¹⁾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reference necessary in improving the fitness of a ready-to-wear brand jacket through a research on the wearing conditions and preferences regarding a tailored jacket by body shape of the women in their 30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by implementing the research method of the self-administered type survey targeting 201 women in their 30s from August 14~28, 2014. First, the female consumers in their 30s preferred one button slim fit jacket when purchasing a tailored jacket and chose a close-fitting size. Second, the slim fit tailored jacket consumers preferred a jacket with some extra portion in the bust and hip areas but tightly fit in the waist area. Third, when purchasing a jacket under the ready-to-wear size system, the women with a triangle shape similar to a standard body silhouette had less instances of mending a jacket while the women with a big or small rectangle shape different from a standard body silhouette had more experiences of mending a jacket. Accordingly, it is expected of the manufacturers to increase the fitness satisfaction of the consumers by identifying the problems concerning the fitness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plans to produce a jacket of a good fitness reflecting the properties of different body shapes through such research on the wearing conditions and preferences regarding a tailored jacket by body shape of the women in their 30s.

Key words : tailored jacket(테일러드재킷), slim fit(슬림핏), wearing condition(착용실태), women in their 30s(30대 여성)

1. 서 론

삼성패션연구소에서 제시한 최근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패션 경향은 다운에이징이나 캐주얼 라이징 트렌드 열풍으로 인해 경쟁 브랜드끼리의 컨셉, 디자인, 소재 등이 비슷해지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모호해져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저렴한 가격이 아닌 그 제품에 담긴 스토리와 디자인, 소재의 고급화, 소비자 타겟의 세분화를 중요시 하게 되었고 특히, 인체에 대한 맞춤새의 만족감이 높은 의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최근의 클래식 테일러드 재킷에서도 젊고 날씬한 트렌드를 반영한 인체에 꼭 맞는 형태의 슬림한 재킷을 즐겨 착용함에

따라 의복의 맞춤새가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재킷의 외형적 형태를 이루는 트렌드를 반영한 슬림한 디자인과 신체적 만족감을 고려한 재킷 패턴 개발이 소비자의 결정적인 구매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브랜드의 치수체계는 타겟 연령층 중에서도 슬림한 체형을 기준으로 치수를 설정하여 30대 여성의 다양한 체형에 적합한 맞춤새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30대 여성의 체형은 Jeong(1994)의 연구에서 보듯이 여성의 체형은 나이가 들수록 길이항목의 치수는 줄어들고 둘레항목의 치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며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Sohn(1989)은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임신, 출산 등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신체의 치수와 프로포션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체형분포를 가지게 된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신진대사의 감소로 인한 비만화로 가슴, 허리, 배 등 둘레부위의 치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신체비례의 균형도 달라진다. Park and Lyu(2004)는 신체

†Corresponding author; SunKyung Park
Tel. +82-2-910-4637, Fax. +82-2-910-4630
E-mail: pak27@kookmin.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일부임.

의 치수와 프로포션이 굵고 짧은 신체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의 폭이 커서 다양한 체형분포를 가지게 된다. 또한 Jeon(2004)은 재킷의 맞춤새 연구에서 현행 사이즈체계의 문제점으로 체형별 그레이딩 증감량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하게 증감시키므로 기준사이즈에서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맞춤새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Choi(2000)도 현행 업체에서 체형에 맞는 그레이딩을 하기 보다는 각 업체별 기준이 되는 키를 설정해 놓고 그레이딩을 하여 기준 키보다 작거나 큰 집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준사이즈를 슬림한 체형을 기준으로 치수를 설정하여 그레이딩을 하므로 30대 여성의 다양한 체형에 맞는 맞춤새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20대에 비해 30대로 갈수록 의복수선 비율이 높아지고 인체부적합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최근 트렌드의 영향으로 재킷의 맞춤새가 더욱 중요한 시기에 본 논문은 30대 여성의 체형별 소비자들의 재킷 착용실태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30대 여성의 체형별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의 맞춤새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맞춤새가 좋은 재킷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30대 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

1) 30대 여성 체형의 특징

Jeong(1990)은 30대 이후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장에 비해 너비항목, 둘레 항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체중이 증가되었다. 특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에 현저한 증가현상을 보였고 가슴과 엉덩이가 쳐지고 상완부, 목둘레, 손목둘레가 굵어지며 어깨부위가 굵어지는 등의 체형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Cho(2006)는 최근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현상으로 자기관리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30대 기혼여성의 경우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30대 여성의 신체적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30대 여성의 체형은 여러 가지 신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신체 특징은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30대 여성의 급격한 신체 변화로 다양한 체형을 가지게 되었고 슬림한 디자인과 맞춤새를 동시에 만족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게 되었다. 이는 기성브랜드에서 인체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맞춤새 향상을 위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선호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30대 여성의 체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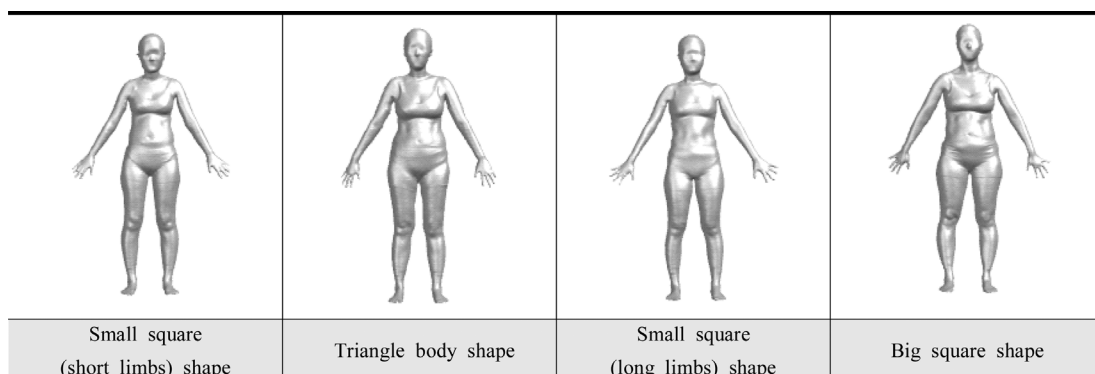
기술표준원에서는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의류, 가구, 주택, 자동차 등 모든 산업제품과 생활공간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한국인의 인체치수 및 인체형상을 측정 조사하는 제6차 한국

Table 1. Classification table for somatotype of women in their 30s

(Unit: person)

Somatotype (pattern)	Size			Total
	Medium height Thick body	Very tall Slightly slender body	Short Slender body	
Small square (short limbs) shape	18	55	134	207
Triangle body shape	42	98	38	178
Small square (long limbs) shape	11	126	59	196
Big square shape	95	1	32	191
Total	166	280	263	709

Source: sizekorea.kats.go.kr



Source: sizekorea.kats.go.kr

Fig. 1. Scanned image of somatotype of women in their 30s by shape.

인 인체치수조사사업(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을 수행하였다. 사이즈코리아(Size Korea)에서는 20~60대까지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30대 여성체형을 작은사각(긴 지체)체형, 삼각체형, 큰사각체형, 작은 사각(짧은 지체)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체형을 가지고 재킷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체형별 체격의 분포를 알아보면 Table 1과 같이 작은사각(긴 지체)체형과 삼각체형은 표준체형과 비교할 때 매우 큰 키 약간 가는 몸통의 체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큰사각체형은 보통 키 굵은 몸통, 작은사각(짧은 지체)체형은 작은 키 가는 몸통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Fig. 1은 30대 여성 표준체형과 체형별 스캔사진의 비교이다.

2.2. 테일러드 재킷에 관한 연구

Kim(2012)은 20세기 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성적인 재킷이 본격적으로 일반 여성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촉진되면서 재킷의 착용은 일반화되었다. Lee et al.(2006)에서는 클래식 재킷을 대표하는 테일러드 재킷은 일반적으로 힙을 덮거나 그보다 짧으며 여밈은 단추나 지퍼 혹은 여밈이 없는 재킷을 말하며 소매가 달린 상의의 총칭으로 말한다. Kondo(1982)는 테일러드 재킷의 조형적 특징은 구성선과 디테일이 남성복의 구조성을 갖고 있으며 어깨는 남성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고, 여성 가슴의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은 여성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다트 양을 분산하여 라펠의 라인과 평행하도록 제도하며, 허리와 엉덩이의 곡선도 가능한 한 곡선으로 보이지 않게 다트 구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Im(2012)은 테일러드 재킷의 두 장 소매는 원래 남성복 상의에 이용되어 왔는데 여성들이 남성형의 재킷인 테일러드 수트를 입기 시작하면서 여성복 소매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두 장 소매의 특징은 첫째,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위팔둘레의 길이를 조절하는데 편리하다. 둘째, 원단을 좀 더 용이하게 분배할 수 있다. 셋째, 두 줄의 숄기선으로 팔의 경사도를 보다 맵시있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소매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테일러드 재킷은 Fig. 2와 같다. 세부적인 디자인으로 칼라부분이 테일러드 칼라이며 허리다트를 기본으로 하는 6패널 재킷 형태를 말한다. 소매는 테일러드재킷의 기본적인 소매인 두 장 소매이다. 두 장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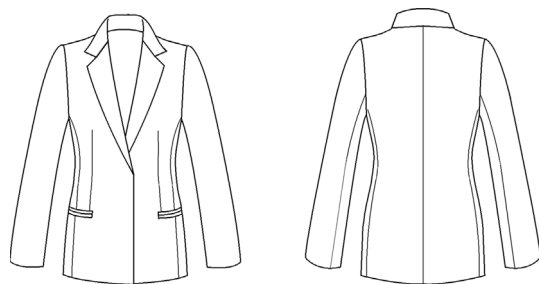


Fig. 2. Tailored jacket.

는 슬림한 소매통과 편안한 소매 각도를 만들기 용이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 소비자의 착용실태를 확인하고 체형에 따른 각 항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30대 여성 201명을 조사 대상으로 2014년 8월 14일~28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은 Table 2와 같이 연령별, 직업별, 월수입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체형별 분포는 설문자 대상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서 사이즈 코리아의 30대 여성의 체형별 스캔사진을 보고 조사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체형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작은사각(짧은 지체)체형(가늘고 짧은 몸통, 짧은 팔, 약간 긴 밑위 길이) 61명(30.3%), 작은사각(긴 지체)체형(가늘고 긴 몸통, 긴 팔, 짧은 밑위 길이) 54명(26.9%), 삼각체형(같은 굵기의 몸통, 넓은 어깨, 긴 팔) 56명(27.9%), 큰사각체형(매우 굵은 몸통, 처진 어깨, 짧은 팔) 30명(14.9%)으로 나타났다.

3.2. 조사내용

대상 연령층의 슬림핏 테일러드 재킷의 구매, 착용실태와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문항은 Kang(2008)과 Kim(2004)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설문자 대상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 테일러드 재킷의 구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

Table 2.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targets

(Unit: person, %)

Category	Group	Frequency	Percent
Age	30~35	110	54.8
	36~39	91	45.2
Total		201(persons)	100.0(%)
Occupation	Office job	117	58.2
	Specialized job	24	11.9
	Sales and service job	10	5.0
	Housewife	40	19.9
	Others	10	5
Total		201(persons)	100.0(%)
Monthly income	Less than 1,000,000	9	4.5
	1,010,000~2,000,000	47	23.4
	2,010,000~3,000,000	76	37.8
	3,010,000~4,000,000	36	17.9
	More than 4,010,000	33	16.4
Total		201(persons)	100.0(%)

Table 3. Distribution of research targets by somatotype

(Unit : person, %)

Somatotype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Small square (short limbs) shape	slender and short body, short arms, slightly long crotch area	61	30.3
Triangle shape	body of the same thickness, raised shoulder, long arms	56	27.9
Small square (long limbs) shape	slender and long body, long arms, short crotch area	54	26.9
Big square shape	very thick body, hunched shoulders, short arms	30	14.9
Total		201	100.0

항,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 착용의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문항, 수선사항 및 재킷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자료 분석은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 소비자의 착용 실태를 확인하고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체형에 따른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

소비자의 착용 실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한편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연구 대상자의 재킷 착용 및 구매 실태

Table 4. Jacket wearing status of research targets

(Unit : person, %)

Category	Contents	Frequency	Percent
Number of buttons of a frequently wearing jacket	1-button	99	49.3
	2-button	88	43.8
	3-button	12	6.0
	4-button	2	1.0
Silhouette of a usually wearing jacket	Loose shape of square form	22	10.9
	Slim shape of looking slender	171	85.1
	Tight shape	8	4.0
Length of a usually wearing jacket	Short at about waist circumference	27	13.4
	Medium length at between waist circumference and hip circumference	99	49.3
	General length at about hip circumference	62	30.8
	Long below hip	13	6.5
Size selection when purchasing a jacket	Purchase of tightly fitting size	174	86.6
	Purchase of slightly smaller size	9	4.5
	Purchase of slightly bigger size	18	9.0
Reason for preferring a tailored jacket	Look feminine	138	68.7
	Look mannish	16	8.0
	Look neutral	47	23.4
Reason for preferring a tailored jacket	Look classic	43	21.4
	Look neat	101	50.2
	Look like a career woman	50	24.9
Reason for preferring a slim fit tailored jacket	Look slim	108	53.7
	Various design options	2	1.0
	Correct body shape	15	7.5
	Look feminine	36	17.9
	Go well with other clothes	38	18.9
Total		201	100.0

재킷착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Table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주로 착용하는 재킷 버튼 수는 '1버튼' 99명(49.3%), 평소 착용 재킷 실루엣은 '날씬해 보이는 슬림한 형태' 171명(85.1%), 평소 착용하는 재킷 길이는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중간 기장이 과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테일러드 재킷 선호 이유는 '여성스럽게 보인다' 138명(68.7%)와 '단정하게 보인다' 101명(50.2%)으로 나타났다. 한편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 선호 이유는 '날씬하게 보인다' 의견이 108명(53.7%)으로 과반 이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테일러드 재킷을 구매 할 때 최근의 짧고 날씬하게 보이려는 다운에이징 트렌드를 반영한 1버튼의 슬림한 형태의 재킷을 선호하고 있다.

체형별 구매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체형에 따라서 구입하는 재킷 사이즈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체형별 특성에 따른 작은사각체형은 B85(구55 size)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삼각체형은 B88(구66 size)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큰사각체형은 B85(구55 size)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체형에 비해 B91(구77 size)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성 브랜드에서 기준사이즈(B85)를 슬림한 체형을 기준으로 치수를 설정하여 사이즈 전개를 하므로 체형의 실루엣에 따라 구입하는 사이즈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재

킷 구매시 사이즈 결정 기준은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너비 평균 40%보다 삼각체형과 작은사각체형(긴지체)에서 높게 나왔으며, 젖가슴둘레 평균 40.6%보다 삼각체형과 큰사각체형에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재킷 구매시 사이즈 결정 기준이 체형에 따라 특정한 주요 부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레이딩 적용 시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의 여유분은 작은사각체형과 삼각체형이 '허리부위에는 여유분이 없고 가슴과 엉덩이부위에는 여유분이 약간 있다'가 높은 평균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기성 브랜드에서의 타겟이 원하는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의 여유분을 파악하여 보다 맞춤새가 좋은 재킷 패턴 개발 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4.2. 체형에 따른 재킷 착용의 부위별 맞춤새

체형에 따른 재킷 착용의 맞춤새를 알기 위해 부위별 맞춤새, 수선 경험,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먼저, 체형별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 착용의 부위별 맞춤새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Table 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체형에 따른 부위별 맞춤새는 소매길이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소매길이는 작은사각(짧은 지체)체형에서 '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큰사각체형에서는 '길다'의 응답이 비교적

Table 5. Jacket purchasing status by somatotype of research targets

(Unit : person, %)

Category		Small square (short)	Triangle shape	Small square (long)	Big square shape
Size of a purchasing jacket	B82(구44 size)	6(9.8)	0(0.0)	4(7.4)	1(3.3)
	B85(구55 size)	42(68.9)	23(41.1)	34(63.0)	14(46.7)
	B88(구66 size)	9(14.8)	28(50.0)	14(25.9)	8(26.7)
	B91(구77 size)	1(1.6)	5(8.9)	1(1.9)	6(20.0)
	Others	3(4.9)	0(0.0)	1(1.9)	1(3.3)
Chi-square		39.612 ^{***} (.000)			
Criteria regarding size when purchasing a jacket	Biacromial Breadth	23(37.7)	24(42.9)	25(46.3)	10(33.3)
	bust Circumference	21(34.4)	23(41.1)	20(37.0)	15(50.0)
	Waist Circumference	7(11.5)	6(10.7)	5(9.3)	1(3.3)
	Jacket Length	10(16.4)	3(5.4)	4(7.4)	4(13.3)
Chi-square		8.088(.525)			
The proper amount of extra space for a slim fit tailored jacket	Tight in the chest, waist and hip areas without extra space	10(16.4)	4(7.1)	11(20.4)	7(23.3)
	No extra space in the chest area but small extra space in the waist and hip areas	15(24.6)	16(28.6)	14(25.9)	8(26.7)
	No extra space in the waist area but small extra space in the chest and hip area	23(37.7)	21(37.5)	18(33.3)	6(20.0)
	No extra space in the chest and waist areas but small extra space in the hip area	10(16.4)	12(21.4)	7(13.0)	8(26.7)
	No extra space in the hip area but small extra space in the chest and waist area	3(4.9)	3(5.4)	4(7.4)	1(3.3)
Chi-square		9.850(.629)			

*** $p<.001$

Table 6. Jacket fitting by section according to somatotype

(Unit : person, %)

Section	Category	Small square (short)	Triangle shape	Small square (long)	Big square shape
Neck area	Tight	7(11.5)	5(8.9)	6(11.1)	1(3.3)
	Appropriate	44(72.1)	49(87.5)	44(81.5)	27(90)
	Large	10(16.4)	2(3.6)	4(7.4)	2(6.7)
	Chi-square (p-value)	8.696(.191)			
Interscye, front	Tight	12(19.7)	14(25)	9(16.7)	8(26.7)
	Appropriate	41(67.2)	34(60.7)	34(63)	19(63.3)
	Large	8(13.1)	8(14.3)	11(20.4)	3(10)
	Chi-square (p-value)	3.290(.772)			
Bust circumference	Tight	13(21.3)	21(37.5)	15(27.8)	16(53.3)
	Appropriate	35(57.4)	27(48.2)	30(55.6)	10(33.3)
	Large	13(21.3)	8(14.3)	9(16.7)	4(13.3)
	Chi-square (p-value)	10.985(.089)			
Waist circumference	Tight	6(9.8)	17(30.4)	11(20.4)	10(33.3)
	Appropriate	44(72.1)	29(51.8)	34(63)	18(60)
	Large	11(18)	10(17.9)	9(16.7)	2(6.7)
	Chi-square (p-value)	11.642(.070)			
Hip circumference	Tight	12(19.7)	7(12.5)	8(14.8)	7(23.3)
	Appropriate	30(49.2)	37(66.1)	34(63)	21(70)
	Large	19(31.1)	12(21.4)	12(22.2)	2(6.7)
	Chi-square (p-value)	9.290(.158)			
Shoulder area	Tight	13(21.3)	14(25)	10(18.5)	4(13.3)
	Appropriate	35(57.4)	29(51.8)	38(70.4)	18(60)
	Large	13(21.3)	13(23.2)	6(11.1)	8(26.7)
	Chi-square (p-value)	6.263(.394)			
Back interscye, length	Tight	8(13.1)	10(17.9)	10(18.5)	5(16.7)
	Appropriate	38(62.3)	37(66.1)	40(74.1)	21(70)
	Large	15(24.6)	9(16.1)	4(7.4)	4(13.3)
	Chi-square (p-value)	6.720(.347)			
Armscye circumference	Tight	10(16.4)	12(21.4)	9(16.7)	9(30)
	Appropriate	40(65.6)	39(69.6)	38(70.4)	17(56.7)
	Large	11(18)	5(8.9)	7(13)	4(13.3)
	Chi-square (p-value)	4.726(.579)			
Jacket length	Tight	6(9.8)	4(7.1)	6(11.1)	4(13.3)
	Appropriate	47(77)	46(82.1)	40(74.1)	22(73.3)
	Large	8(13.1)	6(10.7)	8(14.8)	4(13.3)
	Chi-square (p-value)	1.533(.957)			
Upper arm circumference	Tight	9(14.8)	15(26.8)	9(16.7)	9(30)
	Appropriate	38(62.3)	35(62.5)	38(70.4)	15(50)
	Large	14(23)	6(10.7)	7(13)	6(20)
	Chi-square (p-value)	8.286(.218)			
Sleeve opening	Tight	5(8.2)	4(7.1)	2(3.7)	2(6.7)
	Appropriate	37(60.7)	40(71.4)	41(75.9)	24(80)
	Large	19(31.1)	12(21.4)	11(20.4)	4(13.3)
	Chi-square (p-value)	5.629(.466)			
Sleeve length	Tight	6(9.8)	8(14.3)	8(14.8)	2(6.7)
	Appropriate	26(42.6)	39(69.6)	32(59.3)	15(50)
	Large	29(47.5)	9(16.1)	14(25.9)	13(43.3)
	Chi-square (p-value)	16.430* (.012)			

* $p < .05$

Table 7. Altercation experience by somatotype

(Unit : person, %)

Category	Small square shape (Short limbs)	Small square shape (Long limbs)	Triangular shape	Big square shape
No	32(52.5)	29(53.7)	37(66.1)	12(40.0)
Yes	29(47.5)	25(46.3)	19(33.9)	18(60.0)
Chi-square (p-value)	5.684(.128)			

Table 8. Altercation by section of a jacket according to somatotype

(Unit : person, %)

Section	Category	Small square (short)	Triangle shape	Small square (long)	Big square shape
Neck area	Not altered	60(98.4)	55(98.2)	53(98.1)	28(93.3)
	Altered	1(1.6)	1(1.8)	1(1.9)	2(6.7)
	Chi-square (p-value)	2.545(.467)			
Interscye, front	Not altered	58(95.1)	53(94.6)	53(98.1)	26(86.7)
	Altered	3(4.9)	3(5.4)	1(1.9)	4(13.3)
	Chi-square (p-value)	4.990(.173)			
bust Circumference	Not altered	53(86.9)	52(92.9)	47(87)	25(83.3)
	Altered	8(13.1)	4(7.1)	7(13)	5(16.7)
	Chi-square (p-value)	1.997(.573)			
Waist Circumference	Not altered	49(80.3)	52(92.9)	51(94.4)	25(83.3)
	Altered	12(19.7)	4(7.1)	3(5.6)	5(16.7)
	Chi-square (p-value)	7.425(.060)			
Hip Circumference	Not altered	55(90.2)	53(94.6)	51(94.4)	26(86.7)
	Altered	6(9.8)	3(5.4)	3(5.6)	4(13.3)
	Chi-square (p-value)	2.419(.490)			
Shoulder Area	Not altered	53(86.9)	50(89.3)	48(88.9)	25(83.3)
	Altered	8(13.1)	6(10.7)	6(11.1)	5(16.7)
	Chi-square (p-value)	.758(.859)			
Back Interscye, Length	Not altered	57(93.4)	53(94.6)	52(96.3)	27(90)
	Altered	4(6.6)	3(5.4)	2(3.7)	3(10)
	Chi-square (p-value)	1.437(.697)			
Armscye Circumference	Not altered	56(91.8)	54(96.4)	54(100)	26(86.7)
	Altered	5(8.2)	2(3.6)	0(0)	4(13.3)
	Chi-square (p-value)	7.976 [*] (.047)			
Jacket Length	Not altered	48(78.7)	52(92.9)	48(88.9)	26(86.7)
	Altered	13(21.3)	4(7.1)	6(11.1)	4(13.3)
	Chi-square (p-value)	5.412(.144)			
Upper Arm Circumference	Not altered	54(88.5)	54(96.4)	53(98.1)	26(86.7)
	Altered	7(11.5)	2(3.6)	1(1.9)	4(13.3)
	Chi-square (p-value)	6.967(.073)			
Sleeve Opening	Not altered	54(88.5)	53(94.6)	51(94.4)	26(86.7)
	Altered	7(11.5)	3(5.4)	3(5.6)	4(13.3)
	Chi-square (p-value)	2.921(.404)			
Sleeve Length	Not altered	39(63.9)	44(78.6)	37(68.5)	14(46.7)
	Altered	22(36.1)	12(21.4)	17(31.5)	16(53.3)
	Chi-square (p-value)	9.260 [*] (.026)			

* $p < .05$

높게 나타났다. 젓가슴둘레와 허리둘레 항목에서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5 < p < .1$). 젓가슴둘레는 전반적인 체형에서 ‘알맞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삼각체형과 큰사각체형에서 ‘작다’가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작은사각체형(짧은지체)에서 ‘크다’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허리항목에서도 삼각체형과 큰사각체형에서 ‘작다’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체형의 둘레항목이 클수록 ‘작다’의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전체적이 여유분을 작게 하여 날씬하게 보이려는 트렌드의 경향으로 젓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서 ‘작다’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위에서 60% 내외의 응답자가 ‘알맞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중 재킷길이는 평균 77.1%로 높게 나왔으며 삼각체형이 82.1%로 높게 나왔다. 반면에 젓가슴둘레가 ‘알맞다’는 응답(50.7%)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소매길이가 ‘알맞다’는 응답(55.7%), 어깨부위가 ‘알맞다’는 응답(59.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의 기준 모델의 키와 실루엣에 따라 체형과 비슷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맞춤새를 받았으며 체형의 특성에 따라 젓가슴둘레와 소매길이, 어깨길이의 부위에서는 맞춤새의 변화가 비교적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체형에 따른 재킷 수선 경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체형에 따라서 수선 경험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하지만 큰사각체형에서의 수선경험이 응답자의 60%로 높게 나왔으며 작은사각(짧은 지체)체형은 47.5%, 작은사각(긴 지체)체형은 46.3%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이 기성복 사이즈 체계에서 재킷을 구매 할 때 체형에 따른 수선경험은 기준체형의 실루엣과 유사한 삼각체형은 수선 경험이 낮고 큰사각체형, 작은사각체형 처럼 표준체형과 실루엣이 다른 체형은 수선 경험이 높게 나왔다.

체형에 따른 부위별 수선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Table 8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체형에 따라서 진동둘레와 소매길이에서 체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진동둘레는 큰사각체형에서 수선경험이 비교적 많았으며 소매길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선함’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그중에서 큰사각체형 수선경험이 높게 나왔다. 허리둘레와 위팔둘레 부위에서의 결과

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01 < p < .1$)를 보였는데, 작은사각(짧은 지체)체형과 큰사각체형에서 수선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준체형의 슬림한 실루엣과 차이가 있는 작은사각(짧은 지체)체형과 큰사각체형에서 수선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수선 경험이 있는 91명 중에 어떤 부위를 수선하였는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어깨 부위를 늘인 사람 8명(8.8%), 줄인 사람 17명(18.7%)으로 나타났다. 재킷길이를 늘인 사람 4명(4.4%), 줄인 사람 24명(26.4%)으로 나타났으며, 소매부리를 늘인 사람 3명(3.3%), 줄인 사람 14명(15.4%), 소매길이를 늘인 사람 12명(13.2%), 소매길이를 줄인 사람 56명(61.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복 수선 부위 중 수선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는 소매길이>재킷길이>어깨부위>소매부리 순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수선 부위를 을 파악하여 보다 맞춤새가 좋은 재킷 패턴 개발 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체형에 따른 재킷 개선 요구 사항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Table 9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체형에 따라 전체적인 여유분이 없어 활동하기 불편과 팔을 올릴 때 위팔둘레 압박감이 있어 불편($p < .05$), 가슴부위가 조여서 불편과 팔을 돌릴 때 등 부위가 당겨 불편($p < .01$)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여유분이 없어 활동하기 불편한 정도는 삼각체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가슴부위가 조여서 불편한 정도는 삼각체형, 큰사각체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체형에 따라 팔을 올릴 때 위팔둘레 압박감이 있어 불편과 팔을 돌릴 때 등 부위가 당겨 불편한 정도는 전 체형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형의 둘레항목 비율이 크므로 여유분이 부족하여 가슴부위, 위팔둘레, 등부위에 불편함이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30대 여성의 체형별 맞춤새가 좋은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비자들의 재킷 착용 실태와 선호도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Table 9. Requirements to improve a jacket by somatotype

Evaluation Item	Small square (short)	Triangle shape	Small square (long)	Big square shape	F
Uncomfortable to move around for the lack of overall extra space	2.72 ^b	3.13 ^a	3.04 ^{ab}	2.73 ^b	3.067 [*]
Uncomfortable for the tight chest area	2.67 ^b	3.18 ^a	2.96 ^{ab}	3.27 ^a	4.540 ^{**}
Uncomfortable for the tight waist area	2.67	2.82	2.69	2.90	.799
Uncomfortable for the tight hip area	2.33	2.59	2.52	2.53	1.084
Uncomfortable for the tight pressure in the upper arm area when raising arms	3.25 ^b	3.70 ^a	3.48 ^{ab}	3.60 ^{ab}	2.657 [*]
Uncomfortable for the tight back area when moving arms	2.93 ^b	3.52 ^a	3.26 ^{ab}	3.17 ^{ab}	3.946 ^{**}

* $p < .05$, ** $p < .01$, Duncan test: a>b, ab≐a≐b

첫째, 30대 여성 소비자들은 최근의 젊고 날씬하게 보이려는 다운에이징 트렌드를 반영한 인체에 꼭 맞는 형태의 슬림한 재킷을 즐겨 착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복의 맞춤새가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현행 사이즈체계의 문제점인 슬림한 기준사이즈에서 여유분을 일정하게 증감시켜 생기는 맞춤새의 문제점을 체형별 구매실태의 결과에서 나타난 작은사각체형은 B85(구55 size), 삼각체형은 B88(구66 size), 큰사각체형은 B91(구77 size)의 비율이 높은 사이즈에 따른 체형별 특성을 가지고 기성복 사이즈 전개에 반영한다면 보다 나은 맞춤새를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체형별 구매실태를 통해 재킷 구매시 사이즈 결정 기준이 삼각체형과 작은사각체형은 어깨너비 항목이 삼각체형과 큰사각체형은 젖가슴둘레 항목이 특정한 주요 부위로 나왔다. 이와 같이 체형에 따라 재킷 구매시 사이즈 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의 여유분은 작은사각체형과 삼각체형에서 허리부위에는 여유분이 없고 가슴과 엉덩이부위에는 여유분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형별 여유분의 특성을 통해 기성 브랜드에서 타킷이 원하는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의 여유분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체형에 따른 재킷 착용의 맞춤새를 알기 위해 부위별 맞춤새, 수선 경험,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 기성복 브랜드에서 재킷 제작 시 기준이 되는 모델을 슬림한 체형을 기준으로 치수를 설정하여 일정하게 사이즈를 전개하므로 30대 여성 체형의 적합한 맞춤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30대 여성 체형별 소비자들의 착용실태와 선호도 연구결과를 가지고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 제작 시 체형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고 맞춤새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30대 여성 체형별 맞춤새가 좋은 슬림 핏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 개발을 후속 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4년도 국민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References

- Cho, S. H. (2006). *Brassiere pattern development based on 3d measurements of upper body and breast shape: focused on women in their 3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J. W. (2000). *Development of a grading increments chart for women's wear focusing on dimensional variations among groups of different ages, heights and drop val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Im, S. Y. (2012). *Leonardo davichi way split pattern*. Gyeonggi-do: Hana.
- Jeon, E. J. (2004). *A study on values of grading rules to improve the fitted jacket for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M. S. (1994). *Classification of somatotype and its characteristic according to age group of adult fem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Y. K. (2008).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tailored suit pattern for the chinese adult women : focused on the women in their early 20s in Shangha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J. (2012). *Creative characteristic study of the jacket design appeared in l'officiel magazine :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930 to 197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2004). *A study on the basic pattern of men's casual jacket - Focused on men between 25 and 34 Years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ndo, R. K. (1982). 近藤れん子の立體裁斷と基礎知識(Kondo, Rnko's Drapping and Basic Knowledge) Tokyo: Mode-e-Mode.
- Lee, K. H., Kim, Y. H., Shim, E. Y., Lee, J. S., & Jeong, M. H. (2006). *Costume & item*. Seoul: Gyeongchunsa
- Park, J. H., & Lyu, S. H. (2004). *A study on the middle age women's the body typ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bod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1), 122.
- Sohn, H. S. (1989). *Study on body types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sizes middle aged women's ready-to-wear cloth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7 July 2015; 1st Revised 2 August 2015;
2nd Revised 17 August 2015; 3rd Revised 28 August 2015;
Accepted 30 August 2015)